

## 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(9.24~26)

### 1. 한일 분쟁 관련

#### □ [주요 언론 동향]

- 팡배 신문(澎湃新闻)은 27일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인용 보도<sup>1)</sup>
- 한일 외교장관은 8월 초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면서 양자회담을 가졌고 한·미·일 3자 외교회담도 가진 바 있으나, 몇 차례 회담에도 실질적인 진전 없이 양국의 입장만 서로 확인해왔음.
  - \* 이번 회담은 모테기 외무상 취임 이후 첫 번째 회담임.
- 또한 이번 유엔총회에서는 한·미·일 3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인용 보도
- 신경보(新京报)는 한국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관함식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인용 보도<sup>2)</sup>
- 24일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 해군이 다음 달 14일 일본 해상자위대의 국제 관함식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. 또한 일본의 초청장도 받지 못했다고 밝힘.
  - \* 해당 매체는 한국 측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한일 관계 악화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
- 작년 10월 한국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서는 한국 측이 일본에 ‘육일기’를 걸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일본 측 참가가 취소된 바 있음.

1) 「韩媒：日韩外长将于27日在纽约举行会谈」, 『澎湃新闻』(2019. 9. 24)

2) 「日韩关系持续恶化, 韩国宣布不参加日本海上自卫队阅舰式」, 『新京报』(2019. 9. 24)

- 최신 세계19315(最新世界19315)는 한일 무역전쟁에도 ‘삼성’ 이 어쩔 수 없이 일본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일본 매체를 인용 보도<sup>3)</sup>
- o 일본 매체에 따르면 삼성의 공식 무역 파트너 100개 공급상 리스트에서 일본 기업은 23개로 2위를 차지함(한국 기업 39개).
  - \* 이들 23개 일본기업은 주로 스미토모 화학, SUMCO와 오요시 닛산 등 원자재 공급상과, 도쿄 일렉트론, 캐논, 등 생산설비 업체를 포함하고 있음.
- o 디스플레이와 전지 등 분야는 일본 기업이 핵심소재를 컨트롤하고 있어, 간단히 원자재 조달처를 바꿀 수 없다고 인용 보도
  - \* 또한 삼성에 근무하는 일본 기술자들에 따르면 첨단 부품과 소재는 삼성의 자체 개발보다 외부 조달이 비용 면에서 더 합리적이라고 언급
- o 이에 첨단 부품과 소재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삼성은 최대 파트너인 일본계 공급상과의 상호 의존도를 계속 굳건히 하고자 한다고 보도

---

3) 「日媒：日韩贸易战下 三星不得不继续重视日本」, 『最新世界19315』(2019. 9. 26)